

『三國遺事』 (이민수 옮김, 을유문화사, 2013)의 제3권~제5권

1. 제3권

□ 흥법(興法) 제3: 불교 전래의 유래 및 고승의 흔적

o 순도가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 일으키다

- 도공, 범심, 의연, 담연이 불교 일으켰으나 기록에 없음
-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 임신년(372)에 전진의 부견이 사신과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 보냄
- 375년 초문사를 세워 순도를 두고, 이불란사를 세워 아도를 있게함: 고구려의 불법이 일어난 시초
- * 그러나 <해동고승전>에 순도와 아도가 복위가 아닌 전진에서 옴
- * 고구려의 도읍은 안시성(安市城)이며, 이것을 안정홀이라고 하며 遼水 북쪽에 있었음. 요수의 다른 이름은 鴨綠이며, 지금은 安民江이라고 함.

o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처음 열다

- 제15대 침류왕 즉위년(384)에 동진에서 호승 마라난타가 옴
- 이듬해 을유년(385) 새 도읍 한산주(漢山州)에 절을 세우고 도승 열명을 둔 것이 백제 불법의 시체

o 아도(我道, 阿頭)가 신라에 불교의 기초를 닦다

- 아도는 고구려 사람으로 위에 가서 불법을 배움. 계림으로 가서 (엄장사), 미추왕 3년(계미, 264)에 성국공주의 병을 고친 후 절(흥륜사) 세우는 것을 허락받음
- 23대 법흥왕 13년(갑오, 514)에 불교를 일으킴
- * 불교 전래 시기에 대한 이견: <신라본기>와 <본비>의 차이
-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시작이 진나라 말년인 태원 연간: 순도, 아도가 소수림왕 갑술(374년) 고구려에 온 것은 분명함.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 신라로 오지 않았을 것임
- 아도가 고구려를 떠나 신라로 온 것은 눌지왕 시대였을 것임. (동진 말년에 북방 흉노 혁련발발이 관중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살아남은) 元魏의 승려 담시가 동진의 효무제 태원 9년(384) 말에 경, 울 수십부를 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불교 선전함.→고구려에서 불교를 들은 시초
- 담시가 아도, 목호, 난타와 연대와 사적이 같아, 위 세사람중 한 사람이 이름 바꾼 듯.

o 원중이 불법을 일으키고 염축이 순교하다

- <신라본기> 법흥대와 14년(527)에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함. 이해는 서천축의 달마대사가 금릉(중국 남경)에 온 해임.
- 법흥왕 즉위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마련하려고 함. 그러나 신하들이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박염초(이차 또는 이처라고도 함. 조부는 습보갈문왕의 아들)가 자기 목을 베게끔 하여(흰 것이 솟아올라서) 신라 사람들이 절을 세우고 부처를 받들게 함
- 진흥대왕 5년(갑자, 544) 대흥륜사를 세움. 태청 초년(547)에 梁나라 사신 심호가 사리를 가져오는 등 불경을 받들고 절과 탑이 많이 세워짐.
- 서역의 이름난 승려들이 이땅에 오니 이 때문에 삼한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사해를 통틀어 한 집이 됨

- 법흥, 진흥 두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사관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임. 대통 원년 정미년에 梁 무제를 위해 웅천주(공주)에 절(대통사)을 세움.

○ 보장왕이 도교를 신봉하자 보덕이 절을 옮기다

- <고구려본기>: 고구려 말기에 오두미교(도교)를 신봉함. 영류왕 8년(625) 고구려에서 당에 사신을 보내 불교와 도교를 배울 것을 청하자 당 황제 고조가 허락함. 보장왕은 즉위후 유, 불, 선 三敎를 모두 일으키려 하자, 연개소문이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할 것을 아뢰.
- <당서>: 수나라 양제가 요동 정벌시 裨將 양명(羊暹)이 전쟁에 불리하여 죽게될 때, “내 반드시 고구려의 총신이 되어 저 나라<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맹세함. 개씨(蓋氏)가 정권을 잡게 되자 개(蓋)로 성을 삼았으니, 양명(羊暹)이란 두 글자와 맞아떨어짐.
- <고구려고기>: 수 양제가 고구려 침공후 군사를 돌이킬 때 “내가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작은 나라를 친히 정벌하려다가 이롭지 못한 일을 당하니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자, 右相 양명이 “신이 죽으면 고구려의 대신이 되어서 반드시 그 나라를 멸망시켜 제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아뢰.
- * 양명이 죽은 후 고구려에 태어나서 나중에 蓋金이라 불렀으며, 지위가 소문(蘇文)에 까지 이름. 일 연은 양명이 갑술년(614)에 죽어서 고구려에 태어났다면 10여세에 총재가 되고 왕을 설득하여 사신을 당에 보내 도교를 청한 것이므로, 그 연월일중 잘못되었다고 봄.
- 개금이 왕에 아뢰에 동북과 서남쪽에 긴 성을 쌓게 했으며, 16년만에 끝남. 당 고종 총장 원년 무진(668)년에 우사 유인궤, 대장군 이적과 신라 김인문 등이 고구려를 쳐서 나라를 멸망시켜 왕을 사로 잡아 당에 돌아갔으며, 보장왕의 서자가 4천여 가구를 데리고 신라에 항복함.
- 고려의 우세승통(대각국사 의천)이 보덕성사의 발문에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에 혹해서 불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덕법사는 승방을 날려 남쪽 고대산으로 옮겨 놓았다. 그후 神人이 고구려 마령에 나타나서 ‘너희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고 기록함.

□ 탑상(塔像) 제4: 사기와 탑, 불상 등에 얽힌 僧傳과 사탑의 유래에 관한 기록

○ 가섭불(부처의 이름)의 연좌석

- 신라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전 세상 부처때의 절터
- 진흥왕 14년 계유년(553)에 지은 황룡사터는 일곱절중 하나: 몽고침공때 불전과 탑이 모두 타버림

○ 요동성 육왕탑

- 고구려 성왕이 국경순시중 땅에서 범서를 발견함에 따라 불교를 믿을 마음이 생김
- 당나라 용삭 연간(661-662) 요동에서 전쟁시 행군중인 설인귀가 수 양제가 토벌한 요동의 옛땅에서 불상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려 서울로 옮
- * 서한과 삼국의 지리지: 요동성은 압록강 밖에 있으며, 한 유주(幽州)에 속함. 고구려 성왕이 어느 임금인지 알 수가 없음.
- 아육왕이 귀신의 무리에게 명하여 인구 9억명이 사는 곳마다 탑 하나씩 세우게 함. 염부계(閻浮界, 인도)안에 8만 4천개를 세워서 큰 돌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함

○ 금관성의 파사석탑

- 金官의 호계사(경남 김해군에 위치)의 파사석탑은 수로왕의 비 허황후 황옥이 동한 건무 24년(48)에 서역 아유타에서 배에 싣고온 것임.
- 수로왕은 황후를 맞아 같이 150년동안 나라를 다스림. 제8대 절지왕 2년 임진(452년)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를 세워 복을 빌고 있음. 이때 남쪽 왜국을 진압함. 금관국을 가락국이라 함<가락국본기>

o 황룡사의 장륙존상

- 서촉 아육왕이 석가 존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노란쇠와 황금을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있는 국토로 가서 장륙존상을 이루기 바란다는 공문 발견. 이 배는 남염부제(남인도)의 16개 큰 나라와 5백의 中國, 1만개의 小國, 8만의 촌락을 돌아다닌 끝에 최후로 신라국에 이르러 진흥왕이 불상 제작함
- 자장이 중국 유학시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황룡사의 연좌석은 인도의 무왕이 황철 몇 근을 모아 바다에 띄운 것인데, 1,300년이 지나 신라에 이르러 불상이 이루어지고 절에 모셔진 것은 위덕의 인연임

o 황룡사의 구층탑

- 신라 선덕왕 5년(636) 자장 법사가 중국 대화지에서 신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신라의 어려움을 언급함: “우리 나라는 북으로 말갈에 닿아 있고 남으로는 왜국과 이어졌으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범하는 등 이웃 나라의 횡포가 자주 있으니 백성들의 걱정임“
- 이에 대한 대답: “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 덕은 있어도 위엄이 없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도모하는 것이니.. 황룡사의 호법룡이 나의 큰 아들이며,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에 와서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거든 황룡사안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들이 항복할 것이며, 구한(구이)이 와도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편안할 것이요. 탑을 세운뒤 팔관회를 열고 죄인을 용서하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오...”
- 고려왕이 신라를 칠 계획을 세울 때, 신라의 세가지 보배(황룡사 장륙존상과 구층탑,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있어 침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둠: 周에 九鼎이 있어 楚 나라 사람이 감히 주나라를 엿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 <동도성립기>: 대궐 남쪽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억누를 수 있을 것임.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中華, 제3층은 吳越, 제4층은 托羅(탐라, 제주도), 제5층은 鷹遊(중국 강소성 동해현 동북쪽 바다속에 있는 섬), 제6층은 말갈, 제7층은 거란, 제8층은 여진, 제9층은 예맥(濊貊)을 진압시킴

o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 경덕왕이 당 대종황제가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을 듣고 만불산을 만들어 당에 보냄. 대종이 엿을 보고 “신라의 교묘한 기술은 하늘이 만든 것이지 사람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탄식함

o 세 곳에 나타난 관음상과 중생사

- 신라 말년 천성 연간(926-929) 정보 최은함이 관음보살 앞에 기도를 드려 아들을 낳음. 후백제 견훤이 침범시 최은함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관음상 밑에 숨기고 떠난후 적병이 물러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람. 이 아이가 바로 최승로임.

o 전후에 가지고 온 사리

- 선덕왕때인 정관 17년 계묘년(643)에 자장법사가 당에서 부처의 머리뼈와 어금니, 사리 1백알과 부처가 입던 가사 한번을 가져와서 황룡사탑, 대화사탑 등에 보관함
- 당 대종 5년(신미, 851) 당에 갔던 사신 원홍을 비롯 이후 사신들이 당에서 부처 어금니를 가져옴
- 몽고 침략시인 임진년(1232) 서울을 강화로 옮길 때 부처 어금니를 챙기지 못함. 이후 김서룡이 어금니를 담아둔 불아함을 찾음. 불아함안에 사리가 많이 담김. 경오년(1270) 강화에서 환도시 불아함을 가지고 나눔

○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 진흥왕때 민가 처녀중 아름다운 사람을 原花로 삼고, 무리를 모아 효제와 충신을 가르침. 교정낭이 남모낭을 질투하여 죽이고 죽임당함 → 양가 남자중 덕행있는 자를 뽑아 花郎(郎)으로 삼고, 설원랑을 國仙으로 삼음: 화랑 국선의 시초
- 진지왕때 흥륜사 진자가 미륵선화의 현신인 소년을 만남. → 미시랑을 데려가 화랑국선으로 삼음

○ 낙산사의 두 보살 관음, 정취와 조신

- 의상법사가 당에서 귀국하여 관음보살의 진신이 바닷가 동굴에 산다는 말을 듣고, 洛山이라 부름
- 의상에게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동해의 용이 여의주를 바치고, 관음의 말에 따라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난 곳에 洛山寺를 짓고, 의상이 두 구슬을 이 절에 모심
- 몽고 침입시 두 구슬을 땅에 묻어 보관하였으며, 1258년 궁궐로 장소를 옮겨 보관함
- 신라 승려 조신이 장원 태수 딸과 결혼하여 50년동안 살았으나 가난하여 자식들과 헤어짐: 나중에 꿈인 것을 알고 속세 행복을 취하고자 했던 것을 한탄하면서 정토사를 세움

○ 어산에 있는 부처의 형상

- <고기>: 만어산 근처 아라국(啊囉國: 가라국, 가락국)에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가 바로 수로왕임. 연못속 독룡을 막기 위해 수로왕이 머리를 숙여 부처에게 청하여 설법을 한 후에 나찰녀가 오계를 받았으며, 이후 재앙이 없어짐
- 고려 명종 11년(1180)에 萬魚寺를 세움. 이 산속의 기이한 흔적으로 북천축 가라국 부처의 영상과 서로 같은 세가지가 있음(양주 경계의 옥지에 독룡이 살며, 강가 구름에서 음악 소리가 나며, 부처 영상 서북쪽 반석에 물이 없어지지 않아 부처가 가사를 빨래하던 곳이라고 함).
- 석가여래가 용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봉양하도록 하기 위해 돌 속으로 들어감/ 부처가 바위 위를 발로 밟으니 금과 옥의 소리가 남 * <관불삼매경>, <고승전>, <서역전>, <서역기> 인용

○ 오대산에 있는 오만 진신

- 자장법사가 당에 가서 중국 태화지가의 돌부처 문수보살 있는 곳에서 꿈에 네 구로 된 게(偈: 일체의 법을 깨달았다, 본래의 성품을 가진 바 없다, 불교의 이치를 깨달았다, 노사나불<부처의 진신>을 곧 본다)를 받았으며, 석가세존이 쓴 도구를 건네받음. 귀국후 자장법사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의 진산을 보았으며, 법사가 쉬던 곳에 암자를 지은 곳이 월정사임.
- 자장이 귀국시 정신대왕의 태자 보천, 효명 형제가 오대산에 가서 암자를 짓고 업을 닦던 중, 관음보살 등의 진신을 봄. 보천은 사양하고 효명이 속세로 나가 왕위에 오름
- 성덕왕 원년에 산에 전당을 세우고 문수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당에 모시고 華嚴社를 조직함
- 보천이 죽는 날, 산속에서 행하여 국가를 이롭게 할 일을 기록함: “이 산은 白頭山의 큰 산맥으로 각 臺는 진신이 있는 곳임. 각 대에 보살을 모시고 절을 지으며, 화엄경 등 불경을 염송하게 함. .. 淨行 복전에게 명하여 길이 향화를 계속하면 국왕은 오래 사시고 백성은 편안할 것이며, 문무가 모두 화평하고 백곡이 풍성할 것이다..”

○ 명주 오대산 보질도 태자의 전기 : 효명태자의 형 보질도 태자가 왕위를 사양하고 오대산 신성굴에 들어가 50년동안 도를 닦음

○ 무장사 미타전

- 태종이 삼국을 통일한 뒤에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에 감추었기 때문에 무장사라고 함

2. 제4권

□ 의해(義解) 제5: 고승들의 행적

○ 원광이 당나라(서쪽)에 유학하다.

- 진한 사람. 25세에 陳에 유학. <반야경> 강의. 수의 진 침공시 잡혀 죽을 위기 넘김. 본국인 신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수 나라 임금에게 원광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수 임금이 칙명을 내려 후하게 대접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냄. 귀국후 전표나 계서 등 왕래하는 국서가 원광의 머릿속에서 나옴.
- 진평왕 22년 경신년(600)에 원광법사는 중국에 왔던 조빙사를 따라서 본국에 돌아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 변방을 침범하는 것을 걱정하여 왕이 수에 구원병을 청하는 글을 원광에게 짓게 함. 수 황제가 그 글을 보고 30만 군사를 내어 친히 고구려를 침. 이로부터 원광이 유학에도 두루 통달함을 알게됨
- <삼국사> 열전: 귀산과 사랑부가 원광을 찾아가 평생의 경계로서 세속 5계를 받음.
- 건복 30년(진평왕 35년, 613) 가을에 수나라 사신 왕세의가 신라에 오자, 황룡사에 백좌도량을 열고 여러 고승을 청하여 불경을 강의할 때 원광이 제일 윗자리에 앉음

○ 보양과 배나무

- 보양 법사가 당에서 귀국하여 추하군 봉성사에 머무를 때, 고려 태조가 동쪽을 정벌하여 청도지방에 이르렀음. 태조가 견성 산밑에 이르러 법사에게 산적을 물리칠 방법을 문의하자, 보양이 대낮에 견성의 북쪽으로 쳐들어가라는 의견을 제시함. 태조가 보양의 말에 따라 공격하여 산적의 항복을 받은 후, 매년 가까운 고을의 조 50석을 절에 바침.→ 봉양사.

○ 천축국으로 간 여러 법사

- 천축국 사람들이 해동을 불러 “구구타예설라”라고 부름. 구구타는 닭(鷄)을, 예설라는 귀(貴)를 말한 것임. “그 나라에서는 계신(鷄神)을 받아들여 존경하기 때문에 그 깃을 꽂아서 장식한다”라고 함

○ 혜숙과 혜공이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다

○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 “자장은 변방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스스로 탄식하고 중국으로 가서 大化(불타 1대의 교화)를 구했음. 인평 3년 병신(636)년 왕명을 받들어 서쪽 당나라에 들어가 청량산에 가서 성인을 뵈
- 당 나라 서울에 들어가니 태종이 칙사를 보내어 자장을 승광별원에 거처하도록 함.
- 정관 17년 계유(643)년 선덕왕이 표문을 올려 자장을 돌려주기를 청하여, 귀국하게 됨. 귀국후 자장은 <대승론>을 강론하고 황룡사에서 강연함. 이후 왕이 자장을 대국통으로 삼아 중들의 모든 규범을 승통에게 위임하여 주장하도록 함. 자장은 이를 불교를 널리 퍼뜨리는 기회로 삼아 승과를 두고 각 절들을 관리함에 따라 불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성함.
- 자장은 우리나라의 복장이 제하(諸夏, 중국)과 같지 않다 하여 조정에 건의함. 이에 진덕왕 3년 기유년(649) 처음으로 중국의 의관을 입게하고, 이듬해인 경술년에 정월 초하루를 받들어 영휘(永徽, 당 고종의 연호)의 연호를 사용함. 이 뒤부터는 중국에 조근할 때마다 상번(上蕃: 번국의 상위)에 있었으니 자장의 공이었음.

○ 원효는 모든 일에 구속받지 않는다

- 원효가 요석궁에서 공주를 만난 후 설총을 낳음. 이후 원효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小姓居士라고 이름지음. 원효는 <화엄경>속의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無碍人)은 단번의 생사를 벗어난다”는 문구를 따서 이름을 무애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림. 가난하고 몽매한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였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음. <화엄경소> 지음

o 의상이 화엄종을 전하다

- 의상이 당에 들어가 지엄을 만나 <화엄경>의 뜻을 해석함. 고종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 하자, 당에 간혀 있던 신라의 승상 김흠순 등이 의상에게 먼저 돌아가게 함. 의상은 함형 원년(670)에 귀국하여 이 일을 본국 조정에 알림. 신인종의 고승 명랑에게 명하여 밀단을 가설하고 비범으로 기도해서 국난을 면함.
- 의봉 원년(676)에 의상은 태백산에 들어가 부석사를 세우고 大乘을 펴. 의상은 태백산의 부석사, 가야산의 해인사, 금정산의 범어사, 남악의 화엄사 등 절 열곳에서 불교를 전함. <법계도서인>과 <약소>를 지어 一乘의 요점을 기록하여 천년의 본보기가 되게 함

o 사복이 말을 못하다 : 원효와의 일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우니라’

o 진표가 간자(簡子)를 전하다 : 미륵보살로부터 <전찰경> 2권과 증과간자(점을 치는 대쪽) 189개를 얻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베풀

o 강원도 금강산 발연사의 비석에 관한 기록: 진표율사가 금강산에 들어가 발연수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 명주지방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저절로 죽어서 팔아 먹을 것을 장만하도록 함

o 송전의 석축루: 승려 송전이 중국에 가서 현수국가의 강연을 듣고 가르침을 의상에게 전함. 귀국후 송전은 상주 영내의 개령군에 절을 짓고 사람형상의 돌들을 부하로 삼아 화엄경을 강의함

o 심지가 眞表祖師를 계승하다: 심지는 진한 41대 헌덕대왕 김씨의 아들로 부처의 간자를 모심.

- <점찰경> 상권: 189개 간자의 이름이 각각 있으며, 이들은 삼세의 선악과 과보에 대한 차별의 모습임. 이것을 점을 쳐서 마음이 행하려고 한 일과 간자가 서로 맞으면 감응하고 그렇지 못하면 허류라고 함. <송전>에서 108 첩자라고 한 것은 백팔번뇌의 명칭으로 알고 말한 것임
- 신라말 고승 석충이 고려 태조에게 진표율사의 가사 한 벌과 계간자 189개를 바쳤다고 함

o 유가종(琉伽宗)의 大賢과 화엄종의 法海

- 유가종의 조사인 고승 대현은 남산 용장사에 살았으며, 법상종의 전량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깊은 뜻을 터득하여 통달함. 東國의 후진들이 그 가르침에 따랐으며, 중국의 학사들도 이것을 얻어 안목을 삼음. 경덕왕 천보 12년(735)에 가뭄이 심하자 궁궐에서 <금강경>을 강의하여 우물물이 솟구치게 함.
- 그 이듬해 갑오(754)년 왕은 법해를 황룡사로 청해 <화엄경>을 강론케 함. 동쪽 연못을 넘치게 하여 내전이 떠내려감.

3. 제5권

□ 신주(神呪) 제6: 異僧들의 전기

- 密本法師가 요사한 귀신을 물리치다
 - 선덕왕의 병을 밀본이 <약사경>을 읽고 늙은 여우를 찢러 치유함. 귀신을 쫓고 신통력 발휘..
- 혜통이 용을 항복시키다
 - 혜통이 당에 가서 무외삼장을 뵈고 배우기를 청하자, 삼장은 “우이(隅夷: 동이의 땅, 신라)의 사람이 어찌 法器가 될 수 있겠는가”라 하고 가르쳐주지 않음. 이에 혜통은 화로를 머리에 이어 흉터가 보여줌으로써 삼장의 제자가 됨. 당 황실의 공주가 병이 나자, 삼장의 천거로 혜통이 용을 쫓아내 치료함. 귀국후 혜통이 산속에 가서 용을 달래어 불살계를 주어 용신의 해독이 그침. 신문왕의 병을 치료함
- 명랑법사의 신인종(神印宗)
 - 밀본법사의 뒤에 고승 명랑은 용궁에 들어가 신인을 얻었으며, 여러번 이웃 나라가 침입한 것을 기도로 물리침. 밀교의 교풍이 크게 떨침.
 - 신라 선덕왕 원년(632)에 당에 들어가서 도를 배움. 총장 원년 무신(668)년에 당 장수 이적이 대병을 이끌고 신라 군사와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후, 설방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고 함. 문무왕이 이소식을 듣고 명랑 법사를 청하여 비법으로 빌어서 물리치게 함→ 신인종의 시조.
 - “우리(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울때도 해적이 와서 침범하니, 이에 안해, 낭용의 후예인 광학, 대연 등 두 고승을 청해다가 법을 만들어 해적을 물리쳐 진압했으나, 모두 명랑의 계통이었다.”

□ 감통(感通) 제7: 영험, 感應의 신령스럽고 이상한(靈異) 기록

- 선도성모가 불교행사를 좋아하다
 - 신모는 본래 중국 帝室의 딸이며, 이름은 사소임.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에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地仙이 됨.
 - 제54대 경명왕때 성모를 대왕으로 봉함. 그가 처음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이 처음 임금이었다고 하니, 필경 혁거세와 關英의 두 성군을 낳았을 것임. 때문에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일컬으니 이는 님이 서쪽에 속해 있기 때문임
 - <국사>: 김복식이 송에 들어가 우신관에 나갔더니 한 堂에 女仙의 상이 모셔짐. 관반학사 왕보가 이것이 귀국의 신이라고 함. “옛날에 어떤 중국 제실의 딸이 바다를 건너 진한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해동의 시조가 되었고, 그 여인은 지선이 되어 길이 선도산에 있다.”
 - 송 사신 왕양이 우리 조정에 와서 東神聖母를 제사지낼 때, “어진 사람을 낳아 비로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글귀가 있었음.
- 월명사 도술가
 - 경덕왕 19년 경자(760)4월에 해다 둘이 나란히 나타남. 왕의 요청으로 월명사가 향가 ‘도술가’를 지어 바치자 해의 변괴가 사라짐. 이외 산화가가 따로 있음
 - 월명은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렸는데 향가를 지어 제사지냄. 달밤에 피리를 불자 달이 멈추어섬. 신라 사람들도 향가를 숭상한 사람이 많으며, 대개 詩, 頌 같은 것임.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킴.
-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 김현과 인연을 맺은 처녀(호랑이)가 남편을 위해 죽고, 좋은 약방문을 가르쳐줌. 김현이 탑을 들기에 정성을 다한 것에 부처가 감응하여 명익을 준 것임.
 - 한편, 신도징과 결혼한 아내(호랑이)가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들과 달아남

- 용천사의 혜성사, 진평왕대 : 용천사사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변괴가 사라지고 일본군사가 돌아감

□ 피은(避隱) 제8: 은둔한 高僧들의 기록

- 낭지법사의 구름타기와 普賢樹
 - 지통과 원효는 큰 성인으로서 낭지법사를 스승으로 섬김. 낭지법사는 구름을 타고 오고감
- 연희가 명예를 피하다, 문수점
- 혜현이 조용함을 구하다
- 신충이 벼슬을 버리다
- 포산의 두 성사: 관기와 도성
- 영재가 도둑을 만나다
- 물계자: 내해왕 20년 을미년에 골포국(합포) 등 세나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갈화(울주)를 침범하자 왕이 군사를 이끌고 막음. 물계자가 죽인 적병이 수십급이나 공을 말하지 않음. 물계자는 자신이 용맹이 없고 불충한 것으로 효를 잃었다고 하면서, 사체산에 은거함

□ 효선(孝善) 제9: 효행, 선행, 미담의 기록

- 진정법사의 효도와 선행이 모두 아름답다
 -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시주함. 어머니는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출가를 못하는 것에 반대함. 진정은 출가하여 의상의 제자가 됨. 화엄대전의 강연이 끝난 후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하늘에 환생했다고 함
- 대성이 二世(전세와 후세)의 부모에게 효도하다, 신문왕대 : 불국사를 세운 김대성의 환생 이야기
- 향득사지가 다리 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하다, 경덕왕대
- 손순이 아이를 땅에 묻다, 흥덕왕대
- 가난한 딸이 어머니를 봉양하다